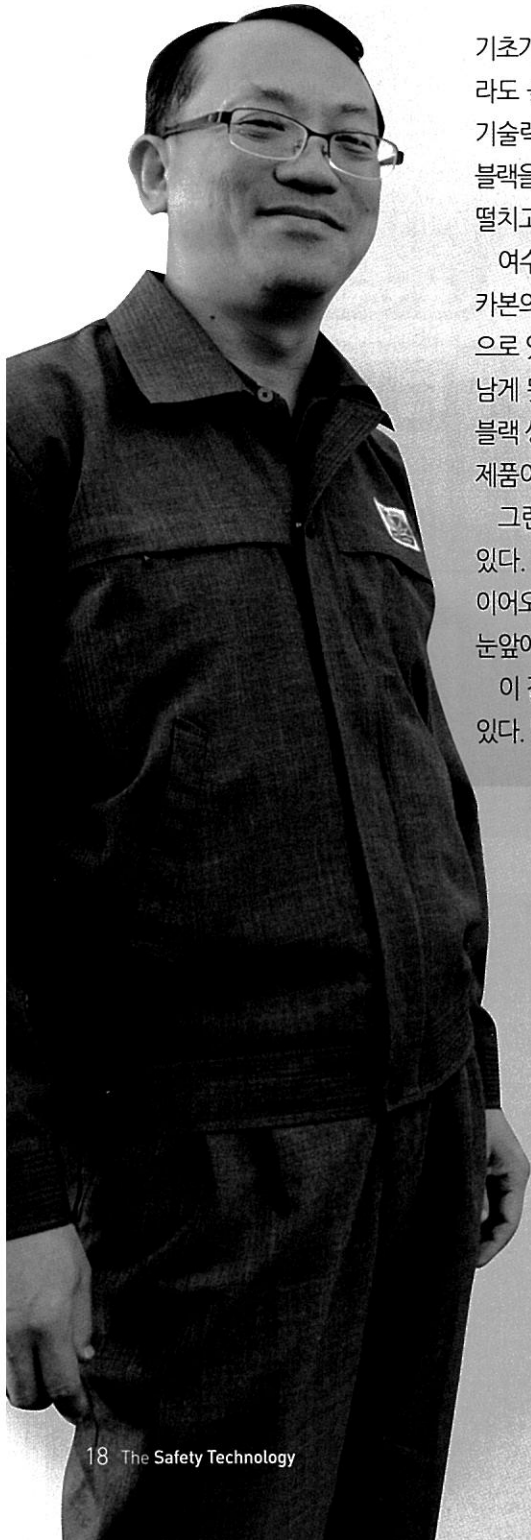


소통을 기반으로 한 안전문화 조성

콜롬비안케미컬즈코리아(주) 김진호 환경기술팀 부장

취재 정태영 기자 anjly@safety.or.kr



기초가 되는 제품 하나하나의 모두가 높은 품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하나의 부품에서라도 불량일 생기면 완제품은 절대 좋은 제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석유화학제품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해 기초화학제품인 카본블랙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콜롬비안케미컬즈코리아(주)는 업계에서 남다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콜롬비안케미컬즈코리아는 인도계 다국적 회사인 벌락 카본의 전세계 17개 공장 중 하나다. 이곳은 그동안 콜롬비안이라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으로 있다가 재작년부터 인도계 회사를 모기업으로 두게 됐다. 하지만 회사 명칭은 그대로 남게 됐다. 콜롬비안이라는 회사 자체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카본블랙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콜롬비안케미컬즈의 제품이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가운데 콜롬비안케미컬즈코리아는 최근 안전으로도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각종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무재해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무재해 8배수를 달성했고, 이제는 9배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환경기술팀 김진호 부장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넓고 깊은 안전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무재해를 이끌고 있는 김진호 부장을 만났다.

체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계 회사인 만큼 이곳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JSA(Job Safety Analysis)를 여수산업단 입주 기업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

김 부장은 이를 토대로 시스템적인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펼친다. 개인이 맡고 있는 각각의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위험요소를 신속히 발견 개선 조치한다. 작업지침 및 사고방지대책, 사고대응방안 등도 각각의 업무마다 세분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그가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안전점검이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테마를 정해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안전점검을 수도 없이 실시한다. 특히 일주일에 두 번씩 팀장급과 사원으로 팀을 이뤄 2인 1조로 안전순찰에 나서게끔 한다. 이는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서로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멘토링 제도로서의 취지도 있다.

그리고 각종 점검 때 지적되는 불안전한 요소나 행동들은 매달 열리는 중앙안전위원회에 보고토록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위험요인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는지 직원들에게 철저히 피드백 시키고 있다.

화재사고와 분진피해 예방에 중점

카본블랙을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다. 원유 등의 기초원료를 반응기에서 연소시키고 발생하는 분진들을 포집한 후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만든다.

이때 1,000~2,000℃의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기가 가장 위험하다. 물론, 반응기 안에 내화벽들이 쌓여져 있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복사열은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이곳에서는 전체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이를 대비해 김진호 부장은 공장 내부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 24시간 화재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각종 소화장비는 물론, 불활성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공정 특성을 감안해 질소쿨링시스템 등의 시설도 철저히 완비해 놓았다.

아울러 이곳의 또 다른 위험요인은 바로 분진이다. 공정 자체가 분진을 만들어내는 공정이니 만큼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분진 피해에 대한 대비에도 철저를 기한다. 설비는 기본적으로 분진이 발생할 수 없게끔 설치해놓은 가운데, 만약에 분진이 누출될 상황을 대비해서도 5~6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분진포집설비를 구축해 놨다. 전체 공장이 아닌 각각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을 포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포집 효율성도 높였다. 여기에 흡시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작업자들에게는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케 하고 있다.

안전은 소통이자 문화

이처럼 김진호 부장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구한다. 안전에는 방심하면 절대 안된다는 안전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는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를 사업장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관리자의 의식을 갖는다면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다고 보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모르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왕따가 됩니다. 즉, 강남스타일이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된 것이지요. 이렇듯 안전도 하루빨리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고, 또 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안전이 부가적이고,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신념 때문일까. 그의 안전관리는 사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29개 회사 안전관계자들이 모여 만든 여수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산업안전분과장을 맡으면서 최신의 안전관리기법이 공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과의 소통을 강화, 여수산단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여나간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그의 안전관리 신념과 활동이 전국으로 널리 퍼져, 무재해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구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 ☺